

국립과학관(國立科學館)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글_ 정인경 고려대 대학원 과학기술협동과정 tonyjenny@paran.com

한 국에 과학관이 처음 세워진 것은 식민지시기였던 1920년대 후반이었다. 은사기념과학관이란 이름으로 일제에 의해 세워진 과학관은 해방 이후 국립과학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가, 1950년 6.25전쟁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 후 1970년대 국립과학관이 재건립되었고 1990년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립과학관의 역사는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국 과학관의 후진성과 역사기록의 부재

최근에 발행된 『科學技術 30年史』(1997, 科學技術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926년 서울 중구 예장동, 옛 왜성대(倭城臺)자리에서 은사(恩賜)박물관으로 출발하였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이 ‘1926년’, ‘은사박물관’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역사성을 일제의 은사기념과학관에 두고 있으면서, 몇 년에 설립되었는지, 어떤 경위를 거쳐 ‘은사기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음을 말한다.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은 일제가 1925년 5월 10일 소위 천황의 결혼 25주년을 맞이하여 은사금 17만 원으로, 1926년 1월 창설준비에 착수하고 1927년 5월 구충독부 건물에 그 일부를 개관하였던 것이다. 과학관의 이름이 ‘은사기념’ 과학관이 된 것은 천황으로부터 받은 은사금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으로, 그 속뜻은 식민지 조선에 천황의 은덕을 베풀어 과학문명이 전파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나 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자료에서조차 은사기념과학관의 명칭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다른 기관이나 연구보고서에는 ‘은사박물관’, ‘은사기념관’, ‘은사과학박물관’, ‘은사과학기념관’ 등등이 속출하고 심지어 ‘조선순종’의 은사금으로 1926년에 개관하였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러한 실례는 한국 과학관이 가지고 있는 후진성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정책을 평가할 일차적인 자료가 정리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과학관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원칙조차 도출해내지 못했다. 그 동안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합리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풍토와 체계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국립과학관의 역사는 뼈아픈 식민지 경험과 그로 인한 한국 과학기술문화의 척박함을 드러낸다.

은사기념과학관은 식민지 지배 정당화 도구

일제는 과학사상을 보급한다는 미명 아래 과학관을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였다. 식민지 과학관은 ‘위대한 과학제국(科學帝國)’ 일본을 부각시켜 열등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과학관의 전시와 강연, 실험, 과학영화 등은 이러한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를 선전하였다.

은사기념과학관에서는 일본 민족이 우생학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인종우생학이 강연되었다. 1938년 ‘일본인의 머리와 서양인의 머리’와 1939년 「일본인과 서양인」이라는 두 차례 강연에서 일본인 남자의 뇌가 세계에서 제일 무거우며 일본인 여자의 뇌는 독일의 여자와 동등 세계 1위라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또한 실험시간에는 화학약품으로 ‘일장기’를 만들었고 일장기의 기원과 국기 게양법, 일본 황실의 상징인 ‘국화꽃’에 대해 강의하였다. ‘야번인(野蕃人)의 이야기’라는 강연에서는 “대만의 아만인(生蕃)은 천황폐하의 은혜로 훌륭한 일본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식민지 지배가 대만인과 조선인을 문명시켰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총독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 개발과 산업발전을 선전하였다. 함남 부전강 수력전기사업에 대한 대형 발전소모형과 동력기관, 사업계획도면 등은 은사기념과학관의 대표적인 전시물이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적 감각 상실

실제 과학관은 자연과 사물에 대한 이해와 감성을 회복하고

과학기술의 비중이 커진 공동체에서 인간의 주체적 역할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식민지 과학관은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의사소통',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함의' 등과 같은 과학관 본연의 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식민지 과학관을 경험하는 것은 스스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자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식민지 지배자의 기준을 합리적인 것으로 세뇌 당하는 '타자화'의 과정이었다. '타자'가 된 식민지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적 감각'을 상실하였다. 과학기술은 자유롭게 상상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이 근대사회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학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일제에 의해 주입되었다. 지배권력이 과학기술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체제에서 권력이 추구하는 방향 이외의 것들은 다 '불온한 것'이었다. 과학기술은 권력이 하라는 대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인 것이며 식민지 개발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다.

1970년대의 국립과학관과 은사기념과학관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은사기념과학관은 전쟁통에 사라지고 새로운 국립과학관이 식민지 과학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형 근대화과정에서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이 등장하고 그 선전수단으로 국립과학관이 주목받게 된 것은 과학관의 식민지적 잔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과학관이 순수하게 과학교육과 연구기관으로 기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탈식민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과학관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왜곡된 형태로 출범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 국립과학관의 정치적 동원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제창된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국립과학관을 비롯하여 한국의 모든 과학관에 영향을 주었다. 그해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각 시·도에 과학관의 설립을 지시한 후, 1974년 9월 전남 학생과학관과 충남 학생과학관, 1975년 3월 충북 학생과학관, 1975년 4월 경남 학생과학관, 1975년 5월 전북 학생과학관, 1975년 7월 강원도 학생과학관, 1975년 9월 경기도 학생과학관, 1978년 3월 제주도 학생과학관 등이 개관하였다. 1979년에는 국립과학관에 산업기술관을 건립하고 1, 2층에 걸쳐 7개의 '중화학공업기지'를 전시하였다.

과학관은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에서 '전시' 부문을 담당하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전국과학전람회, 발명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공개과학교실과 과학영화 상영회를 열었다. 전국민의 과학관이 중앙행정기구의 지시에 따라 비슷한 전시물을 설치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지역에 맞는 개성있는 전시아이템이나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과학관은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정책, 수출증대, 중화학공업화, 유신이념, 새마을운동, 1인1技 교육 등을 선전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70년대 국립과학관은 유신체제라는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탄생된 것이었다.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중화학공업기지'를 전시하며 '합리'와 '능률'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의식 개선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정치적 왜곡은 서구 과학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립과학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때마다 수많은 '국립과학관 확충사업계획'이 남발되었다. 한국 과학관의 정립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연구, 조사면적이 없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조차 등한시되었다.

한국 과학기술문화의 식민지성

이러한 국립과학관의 문제는 식민지 과학관이었던 은사기념과학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과학관은 대중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권력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동원되었다. 일제는 식민지에 과학기술을 이식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소화하여 경험화된 지식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식민지 지배는 문화적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과학관을 통해서 본 한국 과학기술문화의 식민지성은 지금까지 한국 과학기술문화가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자생력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관을 이용하여 식민주의를 심었고 박정희 정권은 유신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펼쳤으며 여기에서 과학관은 실행조직으로 활용되었다. **ST**



글쓰기는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다.